

- 주요 뉴스: ECB 4월 통화정책회의 전망, 연말 금리인상 필요성 논의 여부에 주목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율은 '23년까지 목표치(2%) 상회 예상
 - S&P, 러시아 신용등급을 선택적 채무불이행(SD)으로 강등
 - 독일 총리, 연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때때적으로 평가되는 3월 FOMC 의사록 등이 영향

주가 하락[-1.3%], 달러화 강세[+1.2%], 금리 상승[+3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연준의 양적긴축 조기 시행 가능성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원자재주 및 은행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과 여타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1.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1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8% 상승, 한국 CDS 상승

		4/8일	4/1일	전주말대비			4/8일	4/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488.3	4,545.9	-1.27%	국채 금리 10y	미국	2.70%	2.38%	32bp
	유럽	460.97	458.34	0.57%		독일	0.71%	0.56%	15bp
	중국	3,251.9	3,282.7	-0.94%	CDS 5y	한국	31bp	29bp	2bp
	일본	26,986	27,666	-2.46%		중국	64bp	62bp	2bp
	한국	2,700.4	2,739.9	-1.44%	위험 지표	EMBI+	371	370	1bp
환율	달러지수	99.80	98.63	1.18%		VIX	21.16	19.63	7.79%
	유로화	1.0877	1.1043	-1.50%		WTI유	98.26	99.27	-1.02%
	엔화	124.34	122.52	-1.46%	원자재	구리	472.5	468.9	0.78%
	위안화	6.3650	6.3629	-0.03%		금	1,947.5	1,925.7	1.14%
	원화	1,225.1	1,215.5	-0.7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4월 통화정책회의 전망, 연말 금리인상 필요성 논의 여부에 주목

- 이번 주(4/13~14일) ECB의 4월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 시장에서는 고물가 여건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ECB가 금년 말 주요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인지에 관심. 고물가 지속 등으로 금리인상이 요구되지만, 이는 성장둔화 우려 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선부른 결정은 자제해야 하는 상황
- ECB와 연준과의 통화긴축 강도의 차이 역시 살펴볼 필요. 이번 주 발표될(4/12일) 미국의 연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8.3% 예상)은 다시 한 번 4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는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
- 블룸버그의 David Powell은 4월 ECB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3월에 피력했던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한편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4분기 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 이후 4/4분기 금리인상을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율은 '23년까지 목표치(2%) 상회 예상

- 메스터 총재는 연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해당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물가상승 압력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경기확장과 양호한 고용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미국 하원, 55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 법안 가결. 음식점 등을 지원할 방침

- 550억달러 가운데 420억달러는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지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예정. 민주당은 재원을 구제프로그램 부정 청구분에서 회수한 자금으로 충당하기에 재정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

■ 블랙록, 미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단기간 내 경기후퇴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

- Gargi Chaudhuri는 다수의 경기 측정 지표들이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 시기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 그 동안의 대규모 자산매입 등이 장기 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

■ S&P, 러시아 신용등급을 선택적 채무불이행(SD)으로 강등

- SD 등급은 채무불이행 직전 단계로 국가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지 못할 때 적용.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 강화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와 기술적 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

■ 독일 총리, 연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

- 솔츠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최근 독일의 전체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각각 35%→25%, 55%→40%, 50%→25%)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3월 식량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

- 해당 지수는 159.3으로 전월(140.7) 대비 큰 폭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 특히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비 17% 올랐고, 설탕 및 유제품 가격 등도 대폭 상승

■ 골드만 삭스, ECB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9월과 12월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 Sven Jari Stehn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시기에 각각 0.25%p 인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강력하면 7월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 ECB 정책위원들은 성장둔화보다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

■ 중국 상하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도시봉쇄 지속 불구 사상 최대

- 해당 건수는 2만4943건으로 도시봉쇄를 시작한 3/28일(4477건) 대비 5배 수준.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국민에게 중국의 확진자 발생 집중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 중국 외교부는 당국의 전염병 대책은 효과적이라고 반박

■ 중국 정부, 3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국채보유 규모는 전월비 2% 감소

- 해당 금액은 2.43조위안이며, 감소율은 '15년 8월 이후 최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약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와의 금리 차 감소 등이 원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1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만 이사 및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 중국 3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기업실적 발표, 연준이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 - 블룸버그

(This Earnings Season Will Be Awkward for the Fed)

-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기업실적 발표는 고물가 지속과 소비심리 둔화에도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 CS는 금년 기업이익이 전년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기업이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의미
-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은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유도할 가능성. 이를 고려한다면 연준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강화를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근거를 확보. 다만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연준의 고물가 해결 부담도 완화될 전망

■ 미국 대형은행, 낮은 수준의 예금금리 유지 등으로 예금액 감소 전망 - WSJ

(Bank Deposits Could Drop for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형은행의 예금액은 증가세 지속.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향후 대형은행의 예금액 감소 가능성을 제시. 은행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
- 다만 은행들은 추가 대출에 필요한 예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예금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MMF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에서 MMF로의 자금 이동을 유발할 소지

■ 세계 경제,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Times

(Long Covid: the invisible public health crisis fuelling labour shortages)

■ 미국 증시,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과 마이너스 실질금리 등으로 상승 여력 존재 - WSJ

(Why Stocks Are Rallying in the Midst of a War and Soaring Inflation)

■ 중남미 채권 투자,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와 통화긴축 속도 등이 관건 - 블룸버그

(Next Big Bet in Emerging Markets Hangs on When Rate Cycles Peak)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